

복음주의 상담을 위한 영성에 대한 고찰

이은규 교수

(D.R.E., 안양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복음주의 상담자를 위한 영성에 대해 간략하게 탐구한 글이다.

이 글은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기독교적인 이해,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영성발달의 이해를 위한 신앙발달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영성함양의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은 영성과 관련된다. 때문에 복음주의 상담자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영적 성장까지 가져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영성 고찰을 통해 영육을 고려한 상담을 해야 하며 그리고 영육을 고려한 상담기법의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중심단어: 영성, 복음주의 상담가, 영성의 중요성, 영적 성장, 영성함양의 방법

I. 여는 글

영성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이고, 이 영어 사전적 의미는 “영적임(정신적임), 영적인 것” 이다. 이 영어 사전적 의미는 ‘영성은 몸이나 육체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사상이나 믿음’ 을 나타낸다.

이러한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후기 근대주의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경제발달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의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진 1980년부터 이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커진 관심은 뉴 에이지 운동, 불교의 선, 요가, 명상 등의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성 흐름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은사 중심, 혹은 성령 중심과는 다른 영적인 것에 대한 방향으로의 관심과 욕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1980년 이후, 빈야드 운동의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한국교회의 CCM에는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 영성은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신비적인 것으로, 그리고 신앙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영성이 부족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때문에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조차도 가장 오용되고 있는 단어가 영성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¹⁾

II. 펴는 글

1. 영성의 일반적 이해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이 대두되게 된 것은 5세기경으로, 이 때는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이 영성의 흐름은 가톨릭교회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영성과 영성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1960년경부터이다. 21세기를 향해 20세기를 지나가면서 인류는 정신세계의 빈곤함을 겪으면서 이로 말미암는 인간 내적 삶을 향한 갈망을 영성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해소하려는 활발한 움직임 때문이었다.²⁾ 또 다른 이유는 몇 가지 점에서 기독교 영성을 다른 영성에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영성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또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³⁾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

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물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전매특허를 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로 다양한 영성이 있을 수 있다. 위대한 종교적 전통은 모두 어떤 종류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톨릭의 영성 신학자 조던 오먼(Jordan Aumann)도 영성은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신적 또는 초월적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각자의 종교적 확신에 따른 생활양식을 형성 한다”고 하였다. 물론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⁴⁾고 했다. 이런 오먼의 맥락에서 볼 때, 비단 기독교 영성뿐만 아니라 불교의 영성, 회교의 영성, 도교의 영성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성이란 용어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는 영성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이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성이란 말은 단순히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오성춘 박사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스토아 영성을 예로 세 가지로 설명한다.⁵⁾

첫째로,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실제로 역사상에 살았던 한 인간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받아들여 자기의 정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스토아 영성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을 지닌 한 인격 소크라테스의 삶의 스타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셋째로, 스토아 영성의 개발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엄격한 자기 훈련과 장기적인 노력으로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내면화시키고 그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사는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모든 영성은 나름대로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해에 따른 삶의 궁극적 실체와의 만남으로 이 만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목적의식을 갖게 하며, 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정서의 수용을 체험

하게 한다. 또한 영성은 새로운 내면의 수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그리하여 궁극적 실체, 자기 자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계적 이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제 삼자에게 구체적으로 표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독교 영성⁶⁾의 의미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인본적인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영성이다.⁷⁾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마음과 몸을 피조물의 존재 양태로 지닌 인간이 세계의 고난과 투쟁 속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해 가면서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개체 생명과 공동체 생명체 속에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영성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빛 안에서의 삶이다.⁸⁾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은 기독교 영성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성의 각기 다른 측면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rban Holmes는 “영성이란 하나님을 흡족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안에 있는 생명의 특질로 이해 할 수 있다”⁹⁾고 정의 했고, Oswald Sanders는 영성이란 “그리스도닮음(Christlikeness)”¹⁰⁾ 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들에서 기독교 영성이 포괄해야 할 “다섯 가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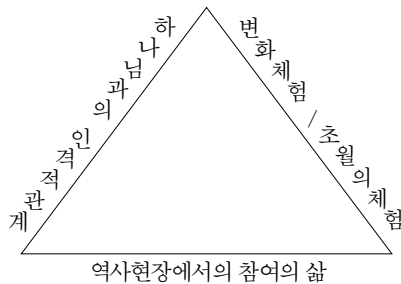
소”¹¹⁾들을 오성춘 박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기독교 영성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요약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²⁾

첫째로, 기독교 영성은 본질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둘째로, 기독교 영성은 초월의 체험을 가져오며, 새로운 의식, 의식의 확장, 새 삶의 출발 등의 전환을 가져온다.

셋째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구체적인 역사현장 가운데서 구현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초월자와의 ‘인격적 관계-변화의 체험-역사현장에서의 참여’라는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송길원, 김양숙은 기독교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총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영성은 다음의 세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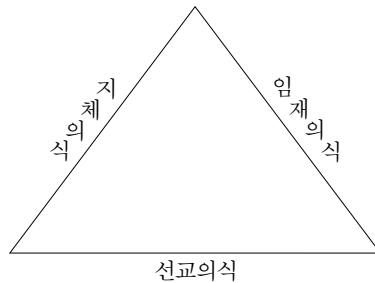
첫째가 임재의식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소명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와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통해 ‘주님과 더불어’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지체의식이다.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릇되었다고 할 때 「나됨」의 표현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관심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찾게 된다. 여기에 섬김과 종의

자세와 순종과 겸손이 있다. 이때의 지체의식은 ‘이웃의 위하여’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게 된다.

셋째가 선교의식이다. 임재의식과 지체의식을 형성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깊숙이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도 ‘특히 로렌스(1614-91년경) 수사의 글을 인용해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하며,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¹⁴⁾

1. 신조 -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기독교 종파 뒤에 공통의 핵심적인 신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신조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모든 기독교 교회들에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신조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2. 가치관 - 기독교 신앙은 매우 윤리적이다. 그렇다고 정해진 지시 사항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의 모음집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대속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나는 가치관, 즉 자기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같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이런 가치관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최상의 본을 보였다고 추앙받는 나사렛 예수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삶의 방식 -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조나 가치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과 가치관이 일정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형성되는 실제적인 삶이다. 신앙인의 일상적 삶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는데 기도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가거나 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회가 기독교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기후, 지리, 문화, 전통, 신학의 차이점을 반영한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보편적으로 ‘영성’ 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성’ 이라는 개념을 대신해서 초기 개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경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성화교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가장 깊은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두 가지 차원, 즉 태도와 기질로 구성된다고 설명되어왔고 태도와 기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¹⁵⁾

‘태도’ 는 세계 또는 그 일부를 향한 개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시간 따라 비교적 지속성을 갖는 신념과 정서의 집합체를 포함한다. ‘기질’ 은 특정 방법으로 행동할 개인의 준비를 말한다. 특정 행동은 기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지만, 기질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관성을 가지고 특정 방향을 따라 행동하도록 이끌어 준다. 인간은 많은 사건과의 관계 안에서 태도와 기질을 갖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을 때 이것은 경건이 된다. 개인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유출되어지는 이런 태도와 기질로 구성된다. 이는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일관된 자세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태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이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행동의 형태 말하며, 예배, 종교적 공동체, 도덕적 노력, 그리고 일반 현실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¹⁶⁾

기독교 영성의 정의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또 기독교 신학자들은 기독교 경건에 대해 다르게 설명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지식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경외(reverence)”라고 정의했고, 제임스 구스타프슨(James Gustafson)과 같은 기독교 신학자는 경건을 “하나님의 목적과 적절히 연관된 인간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 존경의 태도”라고 정의했다.¹⁷⁾

더욱이 칼빈은 기독교 경건의 핵심에 배움의 영이 있다고 믿었다.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개방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교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¹⁸⁾

결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칼빈은 경건을 성경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때문에 기독교 경건주의는 성경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¹⁹⁾라는 구절이 있는데,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오직 하나님을 닮고 경배하는 일에 네 자신을 경주자로 훈련시켜라”라는 뜻이다. 이때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을 닮고 경배하는 일로 번역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닮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영성이란 말과 경건이란 말은 다른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인 가치에 붙잡혀서 사는 영적인 삶의 상태’를 말하고 경건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영성’과 ‘경건’은 같은 종교생활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단어는 ‘경건’일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변화되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으며 그래도 경건이 성경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영성이란

말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3. 영성의 중요성

인간은 창조주와 구별되며 동물과 구분되는 영적인 존재이다. 성경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창 1:27) 피조물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전인(Whole Being)으로서 영적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전인(Whole Being)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때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후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 그런 후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전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²⁰⁾

이러한 인간에게 왜 영성이 중요한가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같이 보이지만, 인간에 관한 구조에 관한 고찰을 해보면 인간에게 왜 영성이 중요한가 더 명백해질 것이다. 사람은 신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영혼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밝히고 싶을 뿐이다. 창세기 2:7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 생기(breath of life)라는 말은 원래 생명(life)이라는 말의 어원인 케이(chay)라는 말로부터 왔는데복수 명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동시에 주신 것을 의미한다. 생기라는 히브리어 르아흐라는 말은 호흡, 또는 숨결이라는 뜻이다. 이 생기는 성령을 뜻한다(참고, 욥 33:4, 요 6:63, 요 20:22).

Calvin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창세기 2:7에 생령은 living soul로, “영혼(soul)”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이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

이다”라고 언급했다.²¹⁾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서 다른 기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어 단어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nephesh(네페쉬)이다. 그것은 “영혼” 혹은 “생명”으로 보편적으로 번역되는 신약성경에서 psuche(프수케)인 그리스어와 일치한다. 영과 영혼 모두는 감정적 생명을 언급하고 또한 모든 생각, 느낌, 그리고 의도의 자리인 어떤 의미에서 “마음(heart)”과 일치한다. 영혼과 영은 자주 서로 바꿔 놓을 수 있게 사용되고, 차이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히브리 문화는 오직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간을 보는 경향이 있다 - 영혼(영) 그리고 육체. 인간에 대한 그리스 개념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참고, 살전 5:23). 넓게 정의된, 영혼은 생명, 감정, 의지, 의식을 의미하고, 반면에 영은 우리가 영적 진리들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더 높은 요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론 육체는 육체적, 물질적인 몸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혼과 영 사이에 구별의 좋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히 4:12).²²⁾

영(전 12:7; 고전 5:3,5)과 혼(마 6:25; 10:28)이라는 이 두 말은 사람에게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한 영적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두 용어는 다만 인간의 영적 요소를 두 가지 다른 견지에서 사용했을 뿐이다. “영”이란 말은, 육체를 관리하는 생명의 원리, 또는 행동의 원리를 뜻한다. 그리고 “혼”이란 말은,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는 인격적 실체를 뜻하며, 특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애정의 자리로 언급되기도 한다(창 2:7; 시 62:1; 63:1; 103:1,2).²³⁾

때문에 인간의 큰 어려움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신의 궁극적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영은 어느 정도 건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적절한 기반이 없으면 창조성이 거의 발휘되지 못한다. 그것은 갈피를 못 잡고 서투른 명석함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계시”에게 지혜를 얻고자 외친다. 우주의 인격적인 창조주의 영만이 인간의 영을 자기 과장, 자기 의심, 자기 열중 그리고 자기 파괴의 기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인간 영의 “대단한 집착”에서 인간의 영을 해방시킬 수 있다.²⁴⁾

이러한 고찰은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인하게 하며 영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임을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영성)’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배우게 된다(롬 8:9).

이런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기능면에서 분류해 본다면 신체적(혹은 생물학적) 존재, 사회적 존재, 정신적(지성적)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세상의 관심이 그곳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야기됨으로 전 인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견해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²⁵⁾ 영성이 없는 것도 문제고 영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어서 문제다. 영성이 없으면, 물질주의와 폭력이 만연하고, 지식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절대적 진리는 없어지고, 동물과 같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무참하게 짓밟은 존재인 현대적 야만인으로 인간은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다. Parker J. Palmer는 이러한 현실을 “많은 이들이 한 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²⁶⁾고 지적한다. Palmer는 우리에게 ‘온전한 시각’으로 지성의 눈과 마음의 눈을 제시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할 것은 마음이다(신 30:6; 잠 23:26). 왜냐하면 마음은 지성(롬 10:13, 14; 히 11:6), 감정(시 28:7; 30:12), 의지(롬 2:10, 13; 골 1:27; 요일 1:5-7)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성의 눈으로 사실과 이성의 세계를 본다. 그 곳은 차갑고 기계적인 세계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핵 과학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 온 세계는 결합이 있고 위험하며 심지어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영역을 보고 있다. 사랑의 힘을 통해 따뜻해지고 변화되는 세계, 지성으로는 볼 수 없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그것이다.²⁷⁾

그러면서 팔머는 우리는 마음을 버릴 수 없으며, 지성도 버릴 수 없다. 어떻게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두 눈을 통해, 흐릿하게 이중으로 보이는 상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치유되고 온전해진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며, 오늘날과 같이 종교가 사실이 아닌 공상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잘못 취급당하고 있는 세속시대에, 영성에서 새

로운 인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의 “만물상”이란 코너에서는 세속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다음과 설명한다.²⁸⁾

우리 젊은 세대의 유행어가 ‘엽기’에서 ‘주접’으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에 주접 동호회가 수 백 개나 뜨고 대학가에도 ‘주접남녀 신입생 환영’ 등의 포스터가 나붙을 정도다. 영화나 가요 쪽에도 ‘엽기’가 가고 ‘주접’이 뜨고 있다니 기성세대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주접세대들’은 체면을 중시하거나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재미있다’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주접’은 사람이나 생물체가 쇠약해지는 상태를 뜻하는 명사로, ‘주접을 떠다’는 말은 음식이나 자질구레한 것에 채신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가리키는 좋지 않은 표현이다. 그런데 신세대들이 추구하는 ‘주접’의 의미는 ‘번뜩이는 재치와 탁월한 유머감각’이라니 국어사전의 뜻풀이도 바뀌어야 할 판이다. 지구촌 신세대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성세대들처럼 골치아픈 정치나 논쟁에 휘말리기 보다는 ‘나만의 재미’를 즐기겠다는 것이다. ‘나만의 재미’는 New, Now, Net의 특징을 가진다. 즉, 싫으면 그만이고(관계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 텅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하고 자신들만의 가치, 나만의 가치는 그 누구와도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이 N세대의 특성이고 그들의 언어이다.

세속적인 재미에 빠져있고 자기중심적인 세대들에게 섬김, 희생, 봉사, 그리고 타인을 위한 비전 등이 의미가 있을까? 컴퓨터가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개인의 가장 깊은 내적인 욕구를 대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인 신세대는 비인격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생명을 이끌어가며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우리 문화의 특징이 초소비주의, 배아줄기세포, 사이버세계 탐닉 그리고 현세적 중심적 사고 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초-소비주의를 통해 하나님 중심보다는 물질중심,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성경중심 보다는 과학중심, 사이버세계 탐닉을 통해 영적세계 보다는 가상세계 그리고 현세 중심적 사고를 통해 내세보다는 현세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대해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분석을 하며 21세기는 기독교의 최대 위기 시대라고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²⁹⁾ 이와 관련해서 현대인들은 삶에 있어서 영적 차원의 상실을 지적할 수 있다.³⁰⁾

서구 사회에 관한 한, 신약성서 시대와 현대 사이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개인 생활과 공동체의 삶에서 영적인 기초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사회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인간 육체의 건강이 영적 건강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 확실히 이것은 교회에 의한 치유 사역이 고려해야 하는 차이점이다. 교회의 치유 사역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만연하고, 영적인 힘의 실재가 무시되거나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치유의 대상인 건강은 부적절하게 정의되고, 치유는 그 범위와 실재에 있어서 완전하거나 포괄적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치유 사역에 있어서 교회는 인간의 전체성(wholeness)을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주장해야 하며, 서구 사회의 이전 세대들이 매우 잘 인식했던 인생의 영적 차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기독교적 영성은 “삶을 위한 대안”³¹⁾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유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질고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³²⁾ 때문에 영성의 추구는 오늘날 영적인 죽음에 대항한 절규이자 영적인 삶을 향한 호소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영성에 대해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측면은 무엇일까?

피터슨은 영성은 일상적인 것인데도 어떤 특별한 형태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³³⁾ 길버트 비어스(V. Gilbert Beers)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의 조화에서 벗어나는 웬지 특별한 영역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³⁴⁾고 지적한다.

어떠한 영역의 특별한 강조와 영성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요인이 영적인 부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전 인격으로서의 완벽한 존재로 설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³⁵⁾ 때문에 영성은 이 시대에 중요한 부분이다.

4. 영성발달

영성발달로서 신앙발달에서,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의 은혜로 중생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사인케 하시고, 참회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이다. 그러나 그 단계를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해버린다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성장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영적인 성숙 면에는 무관심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의 철저한 훈련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며 신학용어를 세련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성숙을 가름하는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³⁶⁾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웨스터호프(Westerhoff)와 파울러(Fowler)를 비교하면 웨스터호프의 경험적 신앙은 파울러의 1, 2단계에 해당하고, 귀속적 신앙은 3단계, 탐구적 신앙은 4단계, 그리고 고백적 신앙은 5, 6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학자를 종합해서 맥컬로우(McCullough)는 “1단계를 천진난만한 신앙인, 2단계는 문자적 신앙인, 3단계는 충성스러운 신앙인, 4단계는 비판적 신앙인, 5단계는 선견지명이 있는 신앙인, 6단계는 성자(성도)”³⁷⁾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영적 발달은 구원 또는 영적 출생으로 시작한다고 달링(Darling)은 자신의 모델에서 제시하고³⁸⁾, 신앙은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는 강조 한다³⁹⁾.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신앙발달의 이론들을 고찰함으로 복음주의 상담자로서 영적 발달이 세워질 기초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1) 로널드 골드만(R. Goldman)의 종교적 사고발달⁴⁰⁾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 발달론에는 하나의 분명한 전제적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사고(宗教的 思考)와 일상적 사고(日常的 思考)는 그 사고의 구조(構造)라는 면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고, 다만 그 사고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골드만은 종교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 제1단계 : 직관적 종교적 사고단계(7-8세까지)
- 제2단계 : 직관적 단계와 구체적 단계의 중간단계
- 제3단계 : 구체적 종교적 사고단계(약 7/8세-13/14세)
- 제4단계 :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의 중간적 단계
- 제5단계 : 추상적 종교적 사고단계(13-14세 이상)

직관적 종교적 사고단계 - 흔히 말하는 전조작적(前操作的)인 직관적 사고는 여러 개의 중요한 성격을 가진다. 어린이는 한 사실을 다른 한 사실에서부터 끌어내는 경우, 둘 사이의 관련을 말해주는 증거가 없이 단순히 변환적(transductively)인 방식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는가?”라는 질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친 목소리에 놀랐다”고 말하는 어린이의 대답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어린이들은 마술사로 생각한다.

직관적 단계와 구체적 단계의 중간적 종교적 사고단계 - 직관적 단계에서 만족할 수 없어 벗어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단계이다. 귀납 논리나 연역 논리를 시도해보지만 곧 실패하게 되고, 복잡한 사실들을 분류해 보고자 할 때에도 빈번히 실패하는 단계이다.

구체적 종교적 사고단계 - 조작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6-7세인데, 종교적 개념에 대한 사고는 2세가량 늦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귀납 논리나 연역 논리가 사용되는데, 그 범위는 구체적 상황이나 시각적 경험이나 혹은 감각적 경험에 한정된다. 이 사고의 수준은 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느냐는 질문에 관해서 명백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

실 많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은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으로 권위 있는 명령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 어린이들은 사람이나 혹은 특정한 행동을 위협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의 중간적 종교적 사고단계 -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아직 온전한 추상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한층 더 발전된 귀납적 논리와 연역적 논리가 사용되나 아직 구체적 요인이 전혀 없어지지 않은 단계이다. 명제를 사용해보려 하고 언어적 진술, 가설을 시도해 보지만 빈번히 실패한다.

추상적 종교적 단계 -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단계이다. 구체적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가설적, 연역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상징이나 추상적 형식을 사용하여 사고할 수 있고, 일관성 있고 포괄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모세의 두려움에 대한 대답 안에서 이 단계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진술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저하게 한 일반적인 죄 의식, 무가치성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을 자주 제안한다. 추상적 · 종교적 사고 단계에 이르러서야 청소년은 비로소 종교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생활에 접목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 골드만의 판단이다.

2) 파울러(James W. Fowler)의 신앙발달⁴¹⁾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 (Faith)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기독교 신학적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개념이다. 경험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활동으로써 신앙을 정의한다.

그렇게 때문에 파울러에게 있어 신앙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한 인간 존재가 세계 내에 존재하고 참여할 것을 계속 선택,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곧 신앙 행위의 과정이다. 종교 간의 차이나 신앙 내용 간의 차이는 ‘궁극적 환경’ (ultimate environment)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 인식방법과 그 궁극적 환경 속에서의 ‘가치의 거점’ (value-center)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학적 언어로서 표현한다면, ‘궁극적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치의 거점’은 ‘게시하는 하나님’ 이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이 셋 간의 삼

각관계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앙을 이해한다. 신앙 발달은 6개의 단계로 구분시키고 있는데, 화올러가 특별히 유의하는 점은 각 단계가 그 단계 나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제0단계 :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
- 제1단계 : 직관적, 투영적 신앙의 단계
- 제2단계 :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
- 제3단계 : 종합적 인습적 단계
- 제4단계 : 개별화 성찰적 신앙의 단계
- 제5단계 : 접촉적 신앙의 단계
- 제6단계 : 보편화된 신앙 단계

제0단계 :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 -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힘은 기본적인 신뢰라는 원천이고 일차적인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상호성의 경험이다.

제1단계 : 절대적 타율성의 관점, 8-9세 - 이 단계의 어린이는 절대적 타율성인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초월적인 절대자인 하나님의 권위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어 표출되는데 이는 종교적 판단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2단계 :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 - 7-8세에서 11-12세 사이의 단계이다. 직관을 넘어서서 추론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물론 아직도 구체적 사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 감각적 언어에 의한 조작사고가 있을 뿐이다. 이 단계는 어디엔가 관련된 신앙을 가지는데, 가까운 집단, 신앙공동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하여 그 집단의 상징, 신화, 교리를 받아들인다. 이해는 대부분 문자적이다.

제3단계 : 종합적 인습적 단계 - 11, 12세부터 시작이 가능한 단계이다. 때로는 성인기에 들어서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 이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가 증가하지만 어디까지나 인습적인 신앙이지 자기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한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종합이 아니고 인습적 권위에 의한 종합이다.

제4단계 : 개별화 성찰적 신앙 단계 - 17-18세 이전에는 생기지 않는다. 보통은 30대나 40대 중반에 생긴다.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성인들이 많다. 자기의 삶의 스타일, 태도, 신념, 결단 등을 결정할 때, 전 단계에서 의존하는 최고의 권위에 만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새로운 근거를 찾는다. 그래서 이 단계를 자율성이 단계라 볼 수 있을 만치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성찰한다.

제5단계 : 접속적 신앙 단계 - 중년 이전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삶의 역설성을 긍정하고 신앙을 가지는 행위에서 긴장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식의 태도를 넘어서서 모호성과 우울을 그대로 인정하는 포괄적 의지가 있다. 제5단계는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결단상식이나 의미창조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 수락하지만 그것은 퇴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옛 진리’를 새 방법으로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6단계 : 보편적인 신앙 단계 - 이 단계에 대한 묘사는 시적(詩的)언어로 되어 있다. 일상적·구체적 언어로써는 묘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한다. 테레사 수녀나 간디와 같은 종교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신(神)과의 일체감이 경험되는 단계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고 참되게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을 소모해 버리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희열을 체험케 되는 그런 단계이다.

3) Thomas A. Droege의 신앙발달⁴²⁾

이 신앙의 발달은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 ① 하나님은 엄마, 아빠와 같다.
- ② 공정한 것이 공정하다.
- ③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 ④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 분이시다.
- ⑤ 단지 말 이상이다.
- ⑥ 나는 꿈을 갖는다.

제1단계 : 하나님은 엄마, 아빠와 같다 - 2-6세 : 이 나이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신뢰감이 발달한다. 그들은 돌봄, 사랑, 그리고 양육을 마련하는 사람을 의존한다. 그들은 보호하고 양육하며 돌보고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동일

시한다.

제2단계 : 공정한 것이 공정하다 - 7-12세 : 이 나이 어린이들은 공정심이 발달한다.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에 매료된다. 그들의 신앙은 자주 복을 받는 좋은 사람과 벌을 받은 나쁜 사람으로 자주 표현된다.

제3단계 :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 약 12세 정도에서 시작 : 이 나이 청소년들은 그들이 믿는 권위에 의존한다.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넓은 접촉은 그들을 갈등스러운 권위에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해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그친다.

제4단계 :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 분이시다 - 약 18세에 시작 : 이 나이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에서 더 독립적이 된다. 그들은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개인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해는 아주 개인적이다.

제5단계 : 단지 말 이상이다 - 적어도 성인이어야 함 : 이 단계의 사람들은 대화에 관련된다. 그들은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에 그리고 다른 견해를 보는데 개방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다.

제6단계 : 나는 꿈을 갖는다 - 이 단계는 매우 드뭅니다 : 이 단계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느낀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자주 개인적 희생으로 그 꿈을 실천한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다.

4) 존 웨스터호프의 신앙과 전개

“최초로 나는 나의 친구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의 귀중한 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전개에 관한 단계설을 생각한 것이다. 나는 신앙의 제1형태를 경험적 신앙(experienced faith)이라 부르며, 제2의 형태를 귀속적 신앙(affiliative faith), 제3의 형태를 탐구적 신앙(seaching faith), 제4의 형태를 고백적 신앙(owned faith)이라고 부른다.”⁴³⁾

경험적 신앙 - 취학 전 유아기 어린이들의 신앙의 특징적인 것은 ‘경험된 신앙’(experienced faith)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이다. 신앙은 최초 다른 사람으로부터 규정되는 모양으로 경험된다. 어린이들은 탐구하며 시도하고, 상상하며 창조하고, 관찰하며 모방하고, 경험하며 반응한다.

귀속적 신앙 - 아동기 및 청소년기 초기 경험적 신앙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는 경우, 사람들은 귀속적 형태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명확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수동적 공동체(accepting community)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활동을 한다.

탐구적 신앙 - 청소년 후기의 어느 시기에 귀속적 신앙에 관한 요구가 충족된다면, 사람들은 탐구적 신앙(searching faith)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장, 전개해 나간다. 탐구적 신앙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회의와 비판적 판단이라는 행위(action of doubt and critical judgment)로 공동체의 속한 신앙 이해로부터 자신이 갖는 신앙의 이해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실험적 시행(experimentation)을 하는 일로 이전에 지녔던 신앙 이해와 삶의 방식을 다른 길로 탐구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그들의 삶을 이데올로기나 활동에 위임하려는 요구를 구현시키려고 때로는 좌절의 경험으로 혼란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삶을 던져 헌신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한다.

고백적 신앙 - 탐구적 신앙의 요구가 초기 성년기의 어느 시기에 충족되는 경우, 우리는 고백적 신앙적 삶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확장하고 성장해 나간다. 경험적 신앙, 귀속적 신앙, 탐구적 신앙을 거쳐서 고백적 신앙(owned faith)에 도달하는 이 전개 또는 성장은 역사적으로 '회심'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회심의 경험은 급박한 것이거나 혹은 점진적인 것이거나, 극적인 것이거나 또는 일상적인 것이거나, 감성적인 것이거나 또는 지적인 것이거나 회심자의 행동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변혁을 의미하고 있다. 고백적(소유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키워준 공동체와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도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려고 노력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여 나간다. 고백적 신앙, 성숙한 신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다.

5) 오저의 종교적 판단 발달 이론⁴⁴⁾

오저의 종교적 판단 발달 이론의 연구 주제는 인간과 궁극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궁극적 존재인 하나님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관계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에 제한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저는 종교적인 기본적 의식을 궁극적 존재자와의 관계에 접목하여 이를 토대로 개인의 종교적 상태에 대한 추론적 의미 구조 해석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오저는 딜레마를 통하여 종교적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바울 딜레마, 욕 딜레마, 부당한 고통의 딜레마, 영원한 구원의 딜레마, 죄책감 딜레마, 사랑의 딜레마, 자살 딜레마, 결혼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하여 종교적 갈등 상황 속에서 종교적 판단의 양극 요소인 거룩함 대 세속, 초월성 대 내재성, 영원성 대 순간, 신뢰 대 불안, 희망 대 어리석음, 자유 대 의존성 등을 통하여 개인이 어떻게 절대자를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종교적 의미를 생성하고, 아울러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 등을 찾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종교적 판단 발달단계는 종교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딜레마를 통하여 종교적인 판단 양식을 구체화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오저에 의해 제시된 종교적 판단형태는 0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구별된다.

제0단계 : 미분화적 상태, 만8-9세 이전 - 이 단계를 종교적 신뢰 이전의 상태로 구분합니다. 이 단계의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내면성 또는 외부성에 묻혀 있는 상태로 이해하게 된다.

제1단계 : 절대적 타율성의 관점, 8-9세 - 이 단계의 어린이는 절대적 타율성인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 단계의 특징은 초월적인 절대자인 하나님의 권위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어 표출되는데 이는 종교적 판단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1단계서 제2단계로의 전이 변화 - 날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던 어린이가 지능이 발달되어 가면서 날씨는 기후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어린이는 혼돈을 가져오며 내면적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는 1단계에서 2단계로의 단계 전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달적 현상이다.

제2단계 : 받기 위해 주려는 성향적 관점, 11-18세 - 제2단계는 연령적으로는 청소년 전기와 중기에 해당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1단계의 절

대적 존재에서 상대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양극성이 형성되고, 처벌과 보상이 약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증진 추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제2단계는 받기위해 주려는 종교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의 전이 변화 -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2단계의 확신은 점차 감소되며 이러한 현상이 3단계로의 전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이다.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이발생은 욕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게 된 이유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인간과 관련된 일들이 궁극자인 하나님에 의한 것보다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제3단계 : 완전한 자율성과 이원론적 관점, 20-25세 - 제3단계에서는 자아의 자율성이 증진되고 절대자의 영향력은 감소되는 초월성과 내재성의 이원론적 성향이 표출된다. 제3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다른 신성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종교적 자율성과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에 인간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초월성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기위해성과 속을 엄격히 변화시키는 사고의 전환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의 전이 변화, 30-40세 - 제4단계에 접어들기 전의 이 과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으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정된 관계를 바라보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제4단계 : 종교적 자율성과 구원계획의 관점, 성인단계 - 제4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던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점진적으로 인간의 모든 결정이나 행동을 위한 내재적 조건으로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제4단계에서의 종교적 개념은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지만 그 역사를 구성하는 인간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기본조건으로써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에 관계된 존재로서 파악됩니다. 제4단계의 종교적 판단 성향은 인간의 기능성에 대한 초월성의 전제 조건에 중점을 두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제5단계 : 상호주관성에 의한 종교적 자율성의 관점, 성인단계 - 제5단계에

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사람들이 그 자신과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 새롭게 인식하는 현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조정되어지는 종교적 내면성을 의미한다. 제3단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제4단계에서의 자유는 궁극자에 의한 자유가 주된 것이었다. 이처럼 자유라는 가능성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곧 인간의 내재성과 같은 맥락에 놓이게 되며 둘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실현되는 특징이 이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합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편적인 결속력을 느끼게 하여 자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타인, 자연까지를 자신과 동일체로 인식하거나 감지하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제5단계는 상호주관성에 의한 자아와 궁극자와의 관계는 상호적으로 조정되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자유와 관련된 사고적 전환이 다른 단계에 비해 강하게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

제1, 2단계인 하위단계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판단발달의 특징은 자율성이 억제되거나 제한되는 타율적인 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고, 중간단계인 제3단계에서는 종교적 판단에 대한 개념형성과 관련하여 유동성이 나타나고, 제4, 5단계로 올라갈수록 종교적인 자율적 판단이 작용하게 된다.

6) 로더(James E. Loder)의 회심을 통한 변형이론⁴⁵⁾

로더는 신앙과 인간발달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로더는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 원리를 적용하여 순간적 변화를 도한 신앙의 성숙을 이론화하였는데 그의 신앙변형 이론의 기본원칙은 신앙은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되는 것으로 변형은 오직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로더는 회심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논리적 단계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변형의 과정이 있다고 제시한다.

로더의 경우 신앙은 발달적인 단계를 거쳐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가등에서 시작됨을 강조한다. 갈등은 기다림, 암시, 상상적 행위를 유발하며 삶과 변화는 인식사건의 4차원적인 삶이 영위되는 세계, 자아, 공허, 거룩의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로더의 회심을 통한 변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이 변화에 논리의 다섯 가지 과정과 인식 사건의 4차원을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변형의 논리는 다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갈등의 단계이다. 변형은 인식의 상황에서 갈등으로 시작하여 이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욱 큰 변형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정밀한 탐구단계이다. 이 단계의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갈등과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답을 찾으려는 심리적 과정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셋째, 상상력의 건설적 행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의 핵심이 되는 통찰력이나 직관 내지 비전이 의식과 무의식간의 경계에서 확신의 힘을 동반한 채 찾아온다. 그 결과 새로운 지각, 견해, 혹은 세계관이 인식자에게 부여된다.

넷째, 힘의 방출과 인식자의 개방단계이다. 이것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묶여 있던 에너지의 방출과 함께 인식자가 그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방출이란 사건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 문제가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의 반응이다. 인식자의 개방은 더해가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의식의 반응이며 자기초월을 위한 의식의 반응이다.

다섯째, 상상에 의한 행위적인 차원에서 재해석되는 단계이다. 이 재해석 작업은 배후와 전면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배후의 해석 작업을 적합성이라 부른다. 문제의 원래 상황과 현재 상상에 의해 구성된 행위가 서로 적합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해 주는 적합성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전면의 작업은 상응이라고 한다. 이것은 적합성이 공적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세계의 일치된 견해에 상응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새로운 해결의 빛 아래서 갈등적 상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인식사건의 4차원

생존의 세계 - 이 세계는 인식사건을 시작하는 갈등의 고통을 체험하는 세계이며 또한 이 세계는 변형적인 인식의 행위 속에 재구성된다.

자아 - 자아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구체화되어 있는 인간됨을 초월하고자 노력한다. 이 자아는 자신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자기 성찰적 자아'와 더 나아가 거룩한 근거를 세울 '영적 자아'의 양면성에 의

해 환경과 동일시 될 수 있고, 그 환경을 점유할 수도 있다.

공허 - 공허는 인간의 세 번째 차원이고 이 차원은 부재, 상실, 부끄러움, 죄악, 증오, 고독 그리고 악마 같은 많은 면들을 가진다.

공허는 죽음보다도 더 거대합니다. 때문에 공허의 차원은 인간존재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더욱 강력한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변형적 인식 사건의 상황이고 '자아'가 인식자이며 공허는 자아와 세계라는 두 차원에 끼어들면서 변형적 인식을 일으키는 갈등인 것입니다. 공허는 무의 인접한 형태들의 궁극적 목표이다.

거룩 - 거룩을 경험하는 것은 실질적 존재의 상태가 존재 그 자체로 명확히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으며, 신앙 안에서 존재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되고 존재 그 자체의 궁극적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된다. 결국 갈등 속에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자아가 적극적 인식을 통해 공허의 경지에 깊이 빠져들게 될 때 바로 거룩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 거룩의 힘은 하나의 경건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견고한 진리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 거룩에 의해 허무로부터의 위협과 고통은 극복되고 자아 자체가 거룩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로더는 확신적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확신적 인식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신앙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신앙발달론자들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은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앙(영성)의 성장에는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 모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발달해가고 발달단계에 알맞은 내용을 제공한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며 기도를 해도 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때문에 인간의 신앙의 발달은 발달과정으로 보다는 순간적 변화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인간의 신앙발달 혹은 신앙성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게 된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화올러 경우 마지막 단계가 성자(성도)의 단계이지만, 우리에게선 시작의

단계가 성도의 단계이다. 인간의 노력의 최상과 신앙의 첫 단계가 같다는(물론 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것은 시사 하는바가 너무도 크다.

이런 자각은 회심 후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통한 양육의 중요성을 가진 영성함양의 방법을 향하게 한다.

5. 영성함양의 방법

“하나님께서서는 예정하신 대로(롬 8:29)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신자가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신다.(빌 1:9-11; 벧후 1:5-8). 그리하여 신자는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14:23; 벧전 1:22, 2:2; 벧후 1:4), 성례전으로(롬 6:3; 벧전 3:21), 기도와 묵상으로(사 40:31; 고후 3:18),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하에 의하여(시 119:17; 롬 2:4; 히 12:10) 점진적으로 성화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⁴⁶⁾라는 것은 영성발달과 마찬가지로 영성함양도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활용할 수 있는 것의 윤곽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례전, 기도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 등을 볼 수 있다.

영성함양을 위해 계발, 훈련 등은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다. 팔머는 영성계발을 위해 신성한 문헌들에 대한 연구, 기도와 관상 훈련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생활 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⁴⁷⁾ 부연하면, 공동체는 종교적 문헌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며, 기도체험에 대한 안내도 제공해준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삶 속의 사랑의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제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도 영성훈련을 위해 내면의 훈련들, 외면의 훈련들, 그리고 공동 훈련들을 제시했다.⁴⁸⁾

계발이든, 훈련이든, 그리고 상담이든 간에,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성숙일 것이다. 성숙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성숙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숙이란 말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즉각적인 순종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격적 성장이다”⁴⁹⁾라고 로랜스 크랩(Lawrence J. Crabb, Jr)는 제시했다. 성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월호이트의 4가지 제시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는, 영적 자율이고 영적인 자기 통제 능력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영적 자율인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자기 통제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는, 영적 완전성이다. 이러한 완전성은 영적인 헌신에서 온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영적인 헌신의 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논하는 것은 주제 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 대답을 주신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영적 완전은 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셋째는, 영적 안전성이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영적 성숙을 장려하고 있고 영적 성숙의 의미가 심리적인 것이 아닌 현대 사조에 따라 움직이는 변덕스러운 신학에 의하여 요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영적인 안전성을 얻으려면 시간이 요구되며 삶의 시련과 회의에 대한 적합한 적응과 함께 영적인 안전성은 성장한다.

넷째는, 지식은 현명한 사용과 연결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 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는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삶에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시사한다. 이 진리 지식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성숙을 목표로 한 (Jay E. Adams)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¹⁾

상담과정은 딤후 3:16의 말씀에 근거하여 네 가지 기본단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교훈 받는 단계(Step one-Teaching), 책망받는 단계(Step two-

Conviction), 바르게 교정 받는 단계(Step three-Correction), 그리고 의로 교육 받는 단계(Step four-Discipline) 이다.

1) 성경을 따라 교훈 받는 단계 -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을 교훈하고 성경적 생활원칙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원칙을 성경연구를 통해 교훈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짐을 서로 지는 원칙에 따라 직접 내담자의 삶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취한다. 또 상담자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시는 사역(요 14:25-26; 요일 2:27)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2) 성경을 따라 책망 받는 단계 -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신자의 신령한 삶의 원칙을 교훈 받은 내담자가 계속 이미 교훈 받은 내용과 또 당면 문제에 직결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도록 상담자가 계속 권면, 권고하는 단계이다. 특히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과 성령의 책망의 사역(요 16:8-14; 히 12:12-13)에 철저히 의존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계속 자신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이다.

3) 성경을 따라 바르게 교정 받는 단계 -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교훈 받고, 책망 받은 것을 기초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 언어와 대인관계 등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를 고백하므로써 용서함 받은 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계속 권면하고 권고하고 돕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4) 성경을 따라 의로 교육(훈련) 받는 단계 - 의로운 삶을 배우는 연단과정으로 볼 수 있는 단계로서 이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답게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경 안에서 성장하도록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에서의 상담자의 주된 활동이고 책임이다.

우리 복음주의 상담자가 영성을 위해 피상담자를 치유하고 상담할 때, 우리는 그들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가와 자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들이 복음주의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는 자신들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진단받고 싶어서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자원을 찾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성

장을 이루어야 한다. 영적 성장을 위해 폴 프루이저(Paul W. Pruyser)는 “진단적 변인으로 거룩함, 믿음, 섭리, 은혜와 감사, 회개, 친교, 그리고 소명감 등 일곱 가지를 제시 했다.”⁵²⁾

아담스와 파울러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숙고가 영성을 위해 우리 복음주의 상담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단순한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치료만이 아닌 내담자의 영혼을 고려한다면, 성경중심의 성경적 진단적 변인과 성경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한국교회와 내담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가진 영혼까지 돌보는 상담에 대한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가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영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기독교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영성이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 영성과 기독교적 영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반적 영성이 인간 스스로가 존경하고 믿는 사람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영성이란 말보다는 경건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시를 했다. 아울러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영성에 대한 고찰 후에 왜 영성이 현대인에게 중요한가를 살펴보았다. 영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유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질고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영성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복음주의 상담자로서 영성의 중요성과 상담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영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여러 학자들을 통해 살펴보면, 인간발달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신앙발달을 가져오는 것인지, 성령의 성화의 사역이 신앙발달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검토하며 영성의 발달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함양의 단편적 방법으로 두 학자 아담스와 프루이저를 소개했다. 물론 한 사람은 성경적 상담학자고 또 한 사람은 불신자인 임상심리학자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아닌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복음주의 상담자는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상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과 영성함양을 함께 고려하는 상담기법을 사용해야 만하고, 더욱이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가졌음을 제시하고 싶다.

【 참고문헌 】

-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김국환. 『종교적 판단 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1.
- 송길원, 김향숙. 『영성개발과 공동체훈련: 그룹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7.
-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 이은규. 『교회학교 교육계획과 실제』. 안양: 도서출판 잠언, 1996.
- 이은규. 『기독교 청소년 교육』. 안양: 도서출판 잠언, 2008.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조석만. 『조직신학(하)』. 안양: 도서출판 잠언, 2001.
- Adams, E. Jay. *How to Help People Chang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6.
- Aumann, Jordon. 『영성신학』,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 Berkhof, Louis. 『기독교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Browning, S. Don(ed.).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 Crabb, Lawrence.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5.
- Foster, J. Richard.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 1993.
- Goldman, Ronald.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The Seabury, 1968.
- Graendorf, C. Werner(ed.).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론』, 김국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Holmes, T. Urbarn.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0.
- Loder, E. James. *The Transforming Moment: Understanding Convictional Experiences*.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1.
- Loder, E. James.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발달』, 유명복 역. 서울: CLC, 2006.
- McGrath, E. Alister. 『기독교 영성 베이직』, 김덕천 역. 서울: 기독교서회, 2006.
- Meier, D. Paul 외 3명. 『기독교 상담학 개론』, 전요섭 외 5명 공역. 서울: CLC, 2004.
- Osmer, Robert Richard. *A Teachable Spiri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Pruysuer, W. Paul. 『생의 진단자로서 목회자』, 이은규 역.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2000.
- Sanders, J. Oswald. *Spiritual Maturity*. Chicago: Moody Press, 1994.
- Stokes, Kenneth. *Faith is A Verb*. Mystic: Twenty-Third Publication, 2001.
- Seymour, L. Jack & Miller, Donald(ed.). *Theological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Westerhoff III & H. John.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 Wilhoit, Jim. 『현대기독교교육』,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Wilkinson, John. 『성서와 치유』, 김태수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Zodhiates, Spiros(ed.). *The Hebrew - Greek Key Study Bible*. Chattanooga: AMG Publishers, 1984.
- Peterson, H. Eugene. “영성, 가장 오용되고 있는 단어.”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한국판 창간호 (2008. 6), 25-29.
- 「조선일보」 2002. 4. 4, 5p.

[후주]

- 1) 한국판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창간호 (2008년 6월), 25-29 참고.
- 2)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15.
- 3)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40.
- 4) Jordon Aumann, 『영성신학』, 이흥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7), 18.
- 5) 오성춘, 『영성과 묵회』, 43-45.
- 6)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영성을 물질적인 것과 대립되는 정신세계 내지는 idea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플라톤 철학의 영향에서 생겨났다. **둘째**는 세상을 떠나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주로 중세 수도원 운동에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인간 자기 내면세계의 정결 도모, 존재의 깊이로의 여행, 자아 성찰을 추구한다. **셋째**, 영성이란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의미하며,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성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세 번째 입장에서 기독교 영성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정용성, “기독교 영성: 개론적 고찰,” 정용석 외 5인 공저,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은성,1997), 17-30. 참고
- 7) 오성춘, 『영성과 묵회』, 48-49.
- 8) 김정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93.
- 9) Urbam T. Holmes,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0), 1-11.
- 10) Oswald J. Sanders, *Spiritual Maturity* (Chicago: Moody Press, 1994), 69-129.
- 11) Urbam T. Holmes, 12. ① 기독교의 영성은 본질적인 용어로서 보다는 관계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다. ③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초월적인 체험과 새로운 의식을 얻는다. ④ 하나님과의 관계의 체험의 실체(본질)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공급받는다. 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체험을 통하여 얻는 새로운 힘을 사용하여 주체적인 참여의 삶을 결단한다.
- 12) 오성춘, 『영성과 묵회』, 70-71.
- 13) 송길원, 김향숙, 『영성개발과 공동체훈련: 그룹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7), 14-15.

- 14) Alister E.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직』 (서울: 기독교서회, 2006), 16-17.
- 15) Richard Robert Osmer, *A Teachable Spiri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49.
- 16) Richard Robert Osmer, *A Teachable Spirit*, 49-50.
- 17) Richard Robert Osmer, *A Teachable Spirit*, 50.
- 18) Richard Robert Osmer, *A Teachable Spirit*, 52-53.
- 19) 디모테전서 4:7.
- 20)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3), 250.
- 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김종흡 외 3인 공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288.
- 22) Spiros Zodhiates(ed.), *The Hebrew - Greek Key Study Bible* (Chattanooga: AMG Publishers, 1984), 3-4.
- 23)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113.
- 24) James E.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유명복 역,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발달』 (서울: CLC, 2006), 28.
- 25) Werner C. 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84-285.
- 26) Parker J. Parml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0), 15.
- 27) Parker J. Parml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15-16.
- 28) 조선일보 2002년 4월 4일자, 5면.
- 29) 이은규, 『기독교 청소년 교육』 (안양: 도서출판 잠언, 2008), 146.
- 30)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김태수 역, 『성서와 치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512-513.
- 31) Jack L. Seymour & Donald Miller(ed.), *Theological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25; 세속사회의 빵으로만 사는 삶이 가져온 죽음의 경험을 탈진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은 4:4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

나라”고 가르치셨다.

- 32) Werner C. 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92.
- 33) Eugene H. Peterson, “영성, 가장 오용되고 있는 단어”, *Christianity Today*, 창간호 (2008년 6월): 25.
- 34) Werner C. 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291.
- 35) Werner C. 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292.
- 36) Werner C. 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290.
- 37) Kenneth Stokes, *Faith is A Verb* (Mystic: Twenty-Third Publication, 2001), 24.
- 38) Paul D. Meier의 3명.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의 5명 공역 (서울: CLC, 2004), 324.
- 39) James E. Loder, *The Transforming Moment: Understanding Convictional Experiences*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1), 15.
- 40)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The Seabury, 1968), 52-64.
- 41) Don S. Browning(ed.),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53-77.
- 42) 이은규, 『교회학교 교육계획과 실제』 (안양: 도서출판 잠언, 1996), 62.
- 43)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Inc., 1976), 91-99.
- 44) 김국환, 『종교적 판단 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복음문서 간행회, 2001), 137-152.
- 45) James E. Loder, *The Trasforming moment*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1), 31-34, 64-91.
- 46) 조석만, 『조직신학(하)』 (안양: 도서출판 잠언, 2001), 782.에서 재인용.
- 47) Parker J. Parml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42-43.
- 48)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보이스사 편집부 역,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서울: 보이스사, 1993).
- 49) Lawrence J. Crabb, Jr.,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5), 30.

50) Jim Ihoit,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Meaning*, 신서균 역, 『현대기독교 교육』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1), pp.59~63.

51) Jay E. Adams, *How to Help People Chang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6). Adams의 이론이 Seven I, Heart Model, 그리고 최근에 Love, Know, Speak, Do Model 등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필자는 영성의 함양을 위해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Lawrence J. Crabb, Jr.,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5.에서도 보면 크랩의 성경적 상담의 목표는 성숙이다.

52) Paul W. Pruyser,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이은규 역,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2000), 57-78. 참고

【Abstract】

A Study on Spirituality For Evangelical Counselor

Eunkyoo Lee

(D.R.E., Any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study on spirituality for evangelical counselor.

This paper includes general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spirituality, the significance of spirituality, spiritual development, and method for nurturing spirituality.

Created human being from God lives the life which take after Christ. But if one does not such life, it is related to spirituality which eventually bring about problem.

The evangelical counselor not only solves but also brings spiritual growth to counselee through this problem. This is the duty of evangelical counselor.

This paper suggest that the evangelical counselor need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technique for body and soul through this review of spirituality.

Key Word: spirituality, evangelical counselor, method for nurturing spirituality, spiritual growth, the significance of spirituality